

# “남 도우는 삶 실천했을 뿐”

## 팔순 이종대씨 ‘청호공덕원’ 설립 50억 쾌척



“흠고 배고픈던 어린시절 돈을 벌면 남을 도우며 살았다고 했던 다짐을 실천했을 뿐입니다”고 말하는 은퇴사업가 이종대(80). 평생 모은 50억원대의 재산을 사회복지에 내놓아 세밀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종로구 공평동에서 현재 40년 된 허름한 2층 슬레이트 집에서 세일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종로구 공평동에서 현재 40년 된 허름한 2층 슬레이트 집에서 세일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 5년전부터 동대생에 장학금 “육영·사회복지에 여생 바칠 터”

이종은 5년전에도 자신이 창건한 청호보훈재단에 재산을 기탁,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오기도 했다. 5세대 조실부묘한 이종은 큰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큰아버지가 학교에 보내주지 않자 불과 12살때 평양 기성학교전문학교 등록금을 마련하기위해 ‘돈

벌이’에 뛰어들어 일본인가게 점원생활, 외관원 등을 해 면서 6개월치 월급인 6백원을 벌었다. 그러나 선배에게 돈을 몽땅 사기당해 복민주, 충북 진천 등을 전전하며 장돌뱅이 생활해야 했다. 이종은 그러나 해방이후 동미화학공사 한국유지개발주식회사 등을 세워 화학비누원료무역과 제조업을 시작하면서 큰 재산을 모았다. “못 배운 것이 한이 됐지요. 제 피와 눈물이 배어있는 이 돈이 어렵고 못 배운이들을 위해 쓰일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게 없습니다.”

도필선 기자

## 경전에 나타난 태아 생명관

### 10일 불교자원봉사사련 낙태 세미나

불교자원봉사사련(회장 성덕)은 지난 10일 조계종 총무원 1층 불교회관에서 불교계 최초로 낙태관련 불교 태아생명수호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낙태문제와 불교적 관점에서 조영태가 대안미련을 시도,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뤄져 온 교계 내부의 낙태반대운동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다음은 불교경전에 나타난 태아 생명관과 인공유산의 문제에 대해 조영태(동국대 교수)와 김무득씨(불지연 시민대학 학장) 발제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 “임신중절은 살인죄”

〈대정신수대장경〉 제 2권 〈잡아함경〉 제19권의 제508경부터 제 20권의 제 519경까지의 총 12경은 살인죄에 대한 세존과 마하목련존자의 문답으로, 임종적 임신중절에 대한 살인죄의 여부를 다루고 있다. 이들 경(經)에서 부처님은 “임신중절의 행위가 이미 태어난 자기자식을 살해하는 일이나 죄중의 죄중의 죄가 된다”며 이같은 사실을 믿고 새겨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btn BBS 송년 특집 ‘다채’

### ‘영상으로 보는 96 불교’ 회향하는 삶 등

불교방송과 불교TV가 연말을 맞아 한해를 정리하는 송년특집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먼저 불교TV는 오는 31일 송년특집 ‘영상으로 보는 96 불교’를 오전10시20분에 방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경주 소속출도 반대운동, 해인점프장 건설 반대운동 등 그 어느해보다도 불교의 대사회적 활동이 두드러졌던 96년을 점검하고 지난 1년동안 벌어진 교계의 크고 작은 사건과 회제를 영상으로 되돌아 보는 시간도 마련된다.

## 진각종 종헌종법 개정 ‘거듭나기’

### 포교원 신설...총인·통리원장 임기 변화 남골당·수련원등 사회복지사업 추진도

진각종(통리원장 락해)이 현대사회에 맞는 종헌종법을 개정하고 미래사회를 향한 불교 포교에 뜻을 올렸다. 지난 12.13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종헌종법은 △포교원과 포교강화 △총인기구개편 △총의회의원 겸직금지 △주요보직임기조정 △대사회사업강화에 중점을 두고있다.

특히 이번총회에서는 종헌종법에 총의회의원 겸직지침을 삽입하여 총의회의원 각 원장 및 부장겸직금지로 통리원 포교원 총의회 사관원등 종헌분립을 실현키로 했다. 종단 주요보직 임기도 정신적 스승인 총인의 경우 75세 이하로 제한하여 종신제에서 연임제로 하고, 3년연임의 통리원장 임기가 4년단임제, 각 심인당 주요임기도 10년으로 확정했다. 또 그동안 지역포교 중심으로 종단활동비행안을 추진해온 진각종은 앞으로 남골당 수련원등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일반사회포교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와함께 대사회적운동으로 창교시절부터 전개해온 참회를 통한 사회의식개혁운동을 발판삼아 통일을 위한 연대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민족적업보를 벗는 자주평화통일을 전개키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진각종 총무부장 진산정사는 “진기 50년을 맞아 교화에 진력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으로 제2의 창종정신으로 새로운 각오와 도약의 의지를 한층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생활불교 실천불교를 구현해 한국불교발전의 구심적

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천태종 동안거 실시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지난 20일부터 오는 1월 19일까지 총본산 구인사를 비롯해 1백30여 사찰에서 일제히 병자년 신도동안거를 실시한다. 이번 신도동안거는 구인사 1만여명과 전국 각찰사 4만여명 등 총 5만여신도가 참석중이다.

### 금강대 신입생 모집

천태종립 금강불교대학(학장 이재창)이 '97년도 신입생 3백70명을 모집한다. 지난 11일부터 원서교부를 시작한 금강불교대학은 천태학과 불교학과 교법사과정등에 오는 2월 10일까지 서울,부산,금강불교대학을 비롯한 전국의 천태종 사찰에서 접수받는다. (02) 464-3306



○서봉대중사 종단장이 지난 15일 봉원사에서 거행했다.

## 태고종 서봉대중사 영결식

태고종은 지난 15일 서울 신촌 봉원사에서 정정 보성스님 승정 덕암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인곡스님 총의회장 담스님 보문종 총무원장 해인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해창스님 정토회장 법륜스님 박찬주 주안지회장 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봉대중사 영결식을 종단장으로 거행했다. (본지 107호 참조)

## ‘108배 1백일 결사모임’ 구성

### 조계종 재가종무원 40여명 참가 신심고취

조계종 총무원과 포교원 교육원에 근무하는 재가종무원들이 ‘108배 1백일 결사모임’을 구성해 화제. 이 모임은 제1회 정기근교육원 교육과장은 “그동안 소홀했던 신심활동을 반성하고, 신앙심 고취와 자기반성의 시간을 갖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재가종무원들의 108배 결사모임을 구성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모임에는 70여명의 재

가종무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40여명이 참가의사를 밝혔다. 108배를 올리며 1백일째 되는 날에 회향한다. 결제 모임은 1월 3일 오전8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한다. 포교원 연수국장 화암스님은 “신심하고 바랄만한 현상으로 받아들이고”며 “이같은 신심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부처님일여 현신하고 보살행을 펼치는 재가 종무원상을 정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계종 포교원이 청소년 불사라는 대명사로 출범했던 ‘불교청소년의 해’가 지난 18일로 회향했다.

이번 회향식은 출범당시 표방했던 조직화, 교육자원개발의 과학화 자료화, 문화사업의 체계화 예술화, 안정적인 운영은 공화한 메아리가 컸다는 평가다. 한마디로 청소년 포교의 중요성만 강조하고 특별한 성과없이 또다른 시작을 알리는 의식제고의 단계였다. 포교원측은 대한불교청소년

년회연합회에 이어 제2의 청소년단체 파라미터 청소년협의회가 출범해 한국청소년 불교의 큰 흐름을 세우고 교계 처음으로 3천여명의 청소년들을



김중근 (취재 1부 기자)

말로만 청소년포교 참석시켜 대규모 연합캠프를 개최해 청소년 포교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자축하고 있다. 하지만 단체의 설립이나 캠프에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는 것만으로 포교의 효과를 크게 얻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파라미터 연합캠프에서 드러난 프로그램 운영의 미숙은 관계자들이 깊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 운영미숙으로 인해 파라미터 캠프에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이밖에도 전국규모의 청소년 단체 구성을 놓고 청교련과의 불협화음 이사진들의 관심부족, 조직사업 장기화 등은 하루빨리 제고해야 될 과제다. 청소년포교를 위한 파라미터 청소년협의회는 단체가 설립된 이상 이같은 현상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서둘러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입으로만 울조리는 포교가 아닌 청소년들의 가슴에 와 닿는 포교사업이 전개된다면 청소년포교는 가속화될 것이다.

황토와 약속의 신비하고도 뛰어난 약성성분이 내열방기와 황토파에서 발생하는 원적외선 열과 함께 뜨거운 수증기로 합쳐져 1시간이상 계속적으로 방출되게 함으로써 인해 조직과피 없이 피공(皮孔)에 가장 효율적으로 침투하여 약리작용을 일으키도록 구조가 설계된 ...

## 전통 황토 쑥좌욕기

○ 전통 황토·쑥좌욕기는 좌욕기능외에 다용도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 “뜨겁지 않고 흥터가 생기지 않는” 신비의 바라밀 쑥뜸기

“암, 종동, 성인병, 부인병, 신경통,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등 온갖 질병에 대해 기적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불교전통 쑥뜸법”

○ 현재 가족중에서 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시니까? ○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 주위에 오랜기간 병을 낫고자 별 방법을 다써도 치유되지 않아 오랜기간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은 안개입니까? ○ 그동안 갖가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으는 많은 사람들이 바라밀쑥뜸으로 완치되었고 현대의학도 포기할 수밖엔 없는 환자들이 바라밀 쑥뜸으로 다시 살아난 실증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주위사람 도움없이 편리한 시간에 혼자서 3군데 현자리를 동시에 뜬 수 있는 것이 큰 특징. 5장 6부에 뜬기는 모든 병의 치료의 근간이 되는 배, 흉, 단전, 중안 3군데 현자리에만 집중적으로 뜨거운 고온이나 흥터가죽이 혼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쑥뜸을 뜬 수 있도록 고안된 바라밀 쑥뜸 진장요법

보급가격: ₩150,000

전국지회 모집 전국시·군·구지회 미개설지역·병문 및 전화상담

■ 제조회 : 바라밀 건강연구회

● 본회 : (지회담당문의)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0342)706-3060

● 본원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한신상가 5동 5층) 대한불교조계종 : 보문포교원(원장 : 각광스님) 부설: 불교바라밀건강연구원 전화: (051)864-3740

〈1〉 좌욕효능

- 여성의 온갖 자궁병질환 및 변비, 처질 배근살등
- 남성의 전립선 질환 및 정력강화 빈뇨, 잔뇨, 소변곤란, 배뇨통등

〈1H〉 20분 30분, 좌욕을 하십시오

〈2〉 미용효능

- 얼굴피부속 노폐물제거피부가 보양제 됨
- 피부노화방지, 외과, 재생
- 피부탄력유지, 윤곽미안 피부 맞서지 효과
- 기미, 여드름, 검버섯등의 예방 및 제거
- 비염, 축농증, 기관지염, 편도선, 천식, 재발된 우두염등

〈1H〉 10~15분 얼굴피부평가를 하십시오